

AI로 다시 설계하는 경주,
AX 대전환의 시작

2026 경주

AI · AX

대전환 시민포럼

GYEONGJU AI·AX CIVIC FORUM 2026

경주 AI·미디어센터 출범 기념

2026. 9. 22.(화) 15:00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01~104호

주최 |  경 주 시 주관 |  (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포럼소개

GYEONGJU AI·AX CIVIC FORUM 2026

APEC으로 세계를 맞이한 경주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

천년의 지혜 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관광·산업·행정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함께 내다보고, 도시의 전환을 기술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의 문제로 풀어가는 자리로,
전문가의 통찰과 시민의 목소리가 만나 경주의 AX 로드맵을 함께 그려갑니다.

전문가가 설계하고 시민이 완성하는 AI 대전환의 장이 열립니다.



행사명	2026 경주 AI·AX 대전환 시민포럼
일 시	2026. 9. 22.(화) 15:00
장 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층 101호~104호
주 최	경주시
주 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2026 경주 AI·AX 대전환 시민포럼

시각	소요(분)	주요 내용	
14:30~15:00	30	등록	[등록 및 안내 + 로봇 식전 퍼포먼스]
15:00~15:03	42	1부	[개회 및 국민의례]
15:03~15:05			[내빈 소개]
15:05~15:07			[행사 취지 및 행사 개요 보고]
15:07~15:17			[AX 대전환 거버넌스 협약식]
15:17~15:27			[자문위원회 발족]
15:27~15:37			[인사말 · 축하]
15:37~15:42			[특별 게스트_ 휴머노이드 로봇] 축하인사
15:42~15:46	4		무대 정리
15:46~16:06	74	2부	[기조강연] 글로벌 AI대전환과 경주시 스마트 도시 전략 (이덕희·DGIST 초빙석좌교수/KAIST 명예교수)
16:06~16:20			[주제발표1] 경주 AX 대전환과 관광진흥비전 : 교토모델을 중심으로 (김정열·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
16:20~16:34			[주제발표2]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경주 발전방안: 원전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발전을 중심으로 (전주현·중앙대학교 교수)
16:34~16:48			[주제발표3] 경주시 AI 활용 전략 로드맵 수립: 2027년의 첫 변화에서 2030년 이후의 성장까지 (이영찬·동국대학교 교수)
16:48~17:00			[종합토론] 지정패널 Q&A (좌장: 최철영·경북공공기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17:00~	-		폐 회

※ 부대행사 (경주로ON, 경주XR버스, AI 가상 융합 사회기반혁신 프로젝트 홍보부스 운영)

※ 시간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조강연자



이 덕 희

DGIST 초빙석좌교수

KAIST 명예교수 · 경제학박사

이덕희 교수는 복잡계 네트워크 경제의 시각으로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석사,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부터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한 뒤 현재 KAIST 명예교수이자 DGIST 초빙석좌교수로 있다. 복잡계 네트워크 경제, 지역혁신생태계, 국토균형발전, R&D 전략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인공지능경영자(AIB)과정 책임교수를 맡아 기업 경영진의 AI 전환 역량 교육을 이끌었다. 스톡홀름대학교 방문교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자문교수, 한국산업경제학회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위원, 산업자원부 Vision 2011 자문위원, 정보통신부 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매일경제신문사 디지털포럼 위원 등 국가 기술·산업 정책 현장에서 폭넓게 활동해 왔다.

주요 연구 관심은 AI 전환(AX)의 산업 파급구조, 네트워크 경제 관점의 혁신생태계 형성,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이다. 특히 기술이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해 왔다. 저서로 『복잡계 네트워크 경제학』, 『내생사회』 등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AI 대전환과 경주시 스마트도시 전략」을 주제로, 국가적 기회와 경주의 고유 자원을 결합하는 5대 중점 전략을 제시한다. 원전(SMR) 기반 에너지 허브 구축, 구미·포항·대구를 잇는 초광역 AI 인프라와 로봇 밸류체인 연계, AI를 결합한 스마트 관광 혁신, 과학·기예 융합형 AI 숙련기술자 양성, 데이터 기반 AI 네이티브 도시행정 구축이 그것이다. 경주가 지닌 원전 생태계와 역사문화 자산을 AI 시대의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공유한다.

1. 글로벌 AI 생태계 동향 및 한국의 기회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는 에너지, 반도체, 인프라, AI 모델, 그리고 AX(AI 전환) 기술에 이르는 5대 레이어로 재편되고 있다. 현재 AI 산업 성장의 4대 핵심 병목 요인으로는 전력, 반도체, 데이터센터, 퍼지컬 AI 인프라의 부족이 지목된다. 이러한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고성능 반도체(HBM) 제조 및 전력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조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AX 주도권을 선점할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였다.

2. 경주시 스마트도시 5대 전략

경주시는 이 같은 국가적 기회와 지역의 고유 자원을 결합하여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중점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원전(SMR) 기반 에너지 허브 구축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동을 위한 무탄소 대용량 전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주시는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생태계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용, 해상선박 추진형, 열공급형 등 수요에 맞춘 다변화된 노형을 개발하고, 미국 테라파워(Terra Power)와의 파트너십 추진 등 초대형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SMR 부품·소재 고밀도 제조 거점을 완성한다.

② 초광역 AI 인프라 및 로봇 밸류체인 연계

구미-포항의 AI 데이터센터 및 대구-포항의 AI 로봇 허브 인프라와 긴밀히 융합하는 초광역 밸류체인을 연계한다. 통신설비, 전력설비, 냉각설비 등 필수 설비 수요를 분석하여 AI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개발하고, 액튜에이터, 자율로봇 솔루션 등 퍼지컬 AI 생태계의 특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③ AI 결합 스마트 관광 혁신

기존 문화재의 수동적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최첨단 AI 인프라를 결합한 '경주 AX' 관광 대혁신을 이룬다. 원효, 의상, 최치원, 최수운 등 역사 인물들을 AI 페르소나로 구현해 관광객과 실시간 대화를 지원하며, Spatial AI를 기반으로 황룡사지, 왕궁 등 유실된 문화재를 AI 글래스를 통해 3D로 실시간 가상 복원한다. 또한 AI 기반 혼잡도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관광 동선을 최적화하고, 다국어 통번역 컨시어지 서비스로 글로벌 관광객 접근성을 제고한다.

④ 과학-기예 융합형 AI 숙련기술자 양성

초광역 AX 산업의 핵심 병목인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과학자-엔지니어-숙련기술자로 이어지는 산학연 선순환 루프의 한 축을 담당한다. 지역 특화 직업학교를 고도화하여 원자력(SMR) 특화 정밀 배관공 및 고난도 용접공을 양성하며, 포스코 등대공장 사례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훈련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실무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가동한다.

⑤ 데이터 기반 AI 네이티브 도시행정 구축

부서별 분절된 데이터 장벽을 해소하고 실시간 데이터 자동 축적 순환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사적 데이터 자산화를 실현한다. 이를 토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와 같은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출입 및 소비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한다.

주제발표자1



김 정 열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AI 정책자문관

김정열 교수는 통상·경제 정책 현장과 대학 연구를 오가며 산업 전환 전략을 다뤄 온 정책 전문가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AI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부에서 해외 및 중국 경제를 담당하는 조사역으로 통상 현장을 분석했으며, 이후 통일민주당 경제(상공·재무)정책전문위원, 정무장관 보좌역, 국회의장실 정부비서관을 지내며 경제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와 조지메이슨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조지메이슨대학교 CAPEC 한국연구센터 제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동명대학교 객원교수로 8년, 용인대학교 외래교수로 5년간 강단에 섰으며, 코글로 부사장과 민주동지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저서로 『미국에서 본 팩스아메리카나』, 『이제는 깨어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자』 등이 있다. 국제 질서의 변화를 한국 경제와 지역 산업의 조건으로 옮겨 읽는 관점이 연구와 집필을 관통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주 AX 대전환과 관광진흥비전」을 주제로, 원전·수소·SMR 전력 인프라를 토대로 한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함께, 보문단지·황리단길 등 관광 현장에 소규모 엠티 노드를 분산 배치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조를 제안한다. 아울러 2027년 STO(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보문단지 숙박·야간관광 인프라의 수익권을 토큰화하는 금융 혁신 방안과, 실시간 혼잡 맵 상시화·엠티 노드 구축·STO 시범사업·퓨처 스퀘어의 AI 문화 허브화라는 네 가지 핵심 실행과제를 공유한다.

경주 AX 대전환과 관광진흥비전 : 교토모델을 중심으로

[배경]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계기로 경주는 '경유형'에서 '체류형·고부가가치 글로벌 관광도시'로 전환을 추진 중. APEC 전후 방문객이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XR 버스·자율주행 셔틀·AI 통번역 등이 이미 실증.

[인프라 전략]

- 원전·수소·SMR 등 전력 인프라 활용 - 강동 모서산업단지 등 5개 후보지역에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 적극 유치 추진
-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 현장(보문단지, 황리단길 등)에 소규모 엠티 노드 분산 배치도 대안으로 모색
- 중앙 데이터센터(대규모 학습)와 엠티 노드(초저지연 실시간 서비스)의 하이브리드 구조

[교토 모델 벤치마킹]

- 교토는 규제 대신 AI 혼잡도 예측 (쾌적도 맵, 京スマ), 엠티 AI 카메라, 생성 AI 스탬프 캘리 등으로 관광객 자발적으로 분산시킴
- 경주는 주요 유적지에 AI 카메라·혼잡 맵을 도입하고 XR·자율주행과 연동해 오버투어리즘을 선제 관리할 수 있음

[해외 사례]

베이징(수자이+관광), 싱가포르(스마트 통관), 유럽 Cicerone(다국어 개인화), 두바이·시안(생성 AI 콘텐츠) 등 — 공통적으로 "실시간 데이터→개인화 안내→수요 분산→체류 증대" 흐름

[금융 혁신]

2027년 STO(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일본 교토 호텔 STO 사례처럼 보문단지 숙소·야간관광 인프라의 수익권을 토큰화하여 소액·해외 투자 유치. 이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로 확장

▣ 핵심 실행 과제

1. 실시간 혼잡 맵·AI 추천 상시화
2. 엠티 노드 인프라 구축 + 권역 데이터센터 연계
3. 보문단지 STO 시범사업
4. 퓨처 스퀘어·세계경주포럼의 AI·문화 허브화

주제발표자2



전 주 현

중앙대학교 교수

컴퓨터공학박사 · HRD정책학박사

전주현 교수는 공학과 인적자원개발학을 함께 전공한 융합형 연구자다.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HRD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부터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가상현실, 피지컬 AI, SW·AI 교육, ICT 환경안전을 연구하면서, 중장년 경력관리와 초·중·고 진로설계까지 기술과 사람을 잇는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아산재단 의료정보팀에서 실무를 시작해 청운대학교 인터넷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대한기계학회 교육부문 부회장이며 공학교육인증원 기획위원, 조명전기설비학회 편집이사,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정회원 및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여교수총연합회 편집위원장, 한국환경공단 ESG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학교육의 질 관리와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오랫동안 다뤄 온 이력이다.

주요 연구 관심은 AR/VR을 활용한 기술인력 양성, ESG 경영, 폐배터리 재생을 포함한 순환경제 전반이다. 기술 도입 자체보다 그 기술을 운용할 사람과 조직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왔으며, TRIZ LEVEL 3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경주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해외 선진 사례를 경주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역사 경관과 첨단 산업을 조화시킨 일본 교토의 사례를 서라벌의 색채와 한옥 갯 지붕을 재해석한 데이터센터 외관 설계로, 서버 폐열을 지역 난방망에 연결한 독일 프라이부르크 모델을 인근 스마트팜·농축산 시설에 온수를 공급하는 이익 공유형 리사이클링 체계로 옮긴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프로젝트처럼 자동차 부품 중심 산업단지를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실증 플랫폼과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 생태계로 전환하는 구상을 함께 다룬다. i-SMR 국가산단·외동 산단·신경주역세권의 3대 후보지 모델과 원전 관련 인센티브 방안,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트랙까지 경주형 산학연 상생 모델의 정책 로드맵을 공유한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경주 발전방안 : 원전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발전을 중심으로

본 주제발표에서는 천년고도 경주시의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와 독보적인 역사·문화 자산을 융합하여 친환경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경주 산업의 미래 50년을 견인할 연계 발전 전략을 다루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붐으로 폭발하는 전력 수요 속에서 경주는 월성원전, 문무대왕과학연구소, i-SMR 국가산업단지 등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보유해 끊임없는 무탄소 전력(CF100)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경주가 보유한 역사·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고성장·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떠오르고 있다.

도시 개발 모델 측면에서는 해외 선진 환경도시의 성공적 사례를 경주 맞춤형으로 벤치마킹하고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 건축 규제로 역사 경관을 보존하며 첨단 IT 산업을 조화시킨 일본 교토의 사례를 적용해, 서라벌의 색채와 한옥 갓 지붕 형태를 재해석한 전통-최첨단 상생형 데이터센터 외관, 디자인 적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데이터센터 발생 서버 폐열을 지역 난방망에 연결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접목하여, 냉각 시 발생하는 온수를 인근 대규모 스마트팜과 농축산 시설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익 공유형 리사이클링 체계, 구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유휴 산업단지를 친환경 테크노폴리스로 도심 재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 프로젝트처럼, 기존 자동차 부품 중심의 산업단지를 AI compute 파워 기반의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실증 플랫폼 및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 생태계로 대전환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i-SMR 국가산단(하이퍼스케일 거점), 외동 산단(모빌리티 특화), 신경주역세권(문화 데이터 및 산학연 R&D)의 3대 후보지 모델과 함께 원전 관련 다양하고 현실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지자체와 기업, 지역 대학(동국대 WISE, 위덕대 등) 및 중앙대학교,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전문 인력 양성 트랙과 R&D 클러스터를 가동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주형 산학연 상생 모델을 완성하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자3



이 영 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정보경영학과 교수
글로벌융합연구소장 · 경영학박사

이영찬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경영혁신과 지역발전 전략에 접목해 온 경영정보시스템 분야 연구자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4년부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융합연구소장을 맡아 AI·디지털 전환, 조직혁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국정보시스템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APEC학회 수석부회장과 경주시 미래전략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주발전연구원장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평생교육원장·생태교육원장을 지내며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시민교육에도 힘써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혁신, 에이전틱 AI의 도입 준비도와 책임 있는 활용, 설명가능한 AI를 활용한 제조 품질 예측, AI 거버넌스다. APEC 기반 디지털 전환과 경제성장, 포스트 APEC 경주포럼의 전략과 실행에 관한 연구도 수행해 왔다. 생성형 AI 기반 금융자문서비스 연구로 2024년 경영정보 관련 5대 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에 게재한 논문이 해당 학술지의 2025년 최다피인용 논문으로 인정받았으며, 동국학술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주시 AI 활용 전략 로드맵 수립」을 주제로, 관광·산업·도시·시민 분야의 15개 후보사업을 단계별 실행 전략으로 연결한다. 2027년 관광 분야 우선실증을 출발점으로 생활·복지와 지역기업의 현장 문제를 함께 다루고, 검증된 성과를 도시 운영과 장기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는 로드맵을 제안한다. 경주시·소관부서의 책임과 경주 AI·미디어센터의 실행지원 역할을 구분하고, 기술의 가능성을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전환하는 경로를 공유한다.

경주시 AI 활용 전략 로드맵 수립 : 2027년의 첫 변화에서 2030년 이후의 성장까지

본 발표는 인공지능(AI)의 도입 자체보다 시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경주시의 AI 전환 실행 로드맵을 제안한다. ‘일자리와 산업’, ‘관광과 지역경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함께 누리는 AI’의 네 영역에 걸친 15개 후보사업을 하나의 실행 순서로 연결하고, 2027년의 우선실증에서 2030년 이후의 조건부 산업 성장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2026년에는 수요·데이터·기존 시스템·운영주체·예산·법·보안 등 추진 조건을 점검한다. 2027년 우선실증안은 ‘천년경주 AI 관광동행(가칭)’, ‘생활·복지 AI 안내’, ‘지역기업 AI 현장실증’이다. 특히 관광 분야부터 실증하는 안을 제안한다. 경주로ON과 기존 XR·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현장 QR로 접속하는 다국어 대화형 안내를 제공하고, 검증된 역사·문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과 일정 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예약·이동 서비스 및 지역 상권과 연결해 관광객의 방문이 체류와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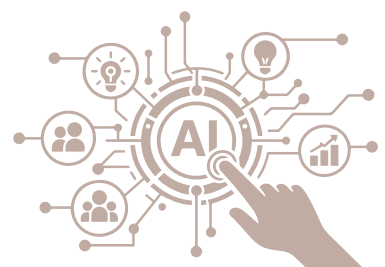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쉬운 말로 설명하고 준비서류와 담당 창구를 안내하되, 최종 판단과 상담은 담당자가 수행한다. 찾아가는 AI 교실 등 기존 교육 기반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수요조사로 현장 문제와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청년·대학·기술기업을 연계해 검사·점검 등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다. 효과가 확인된 과제는 후속 계약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8년에는 검증된 관광·예약·이동·상권 서비스를 연결하고, 생활서비스와 기업 실증을 여러 생활권과 현장으로 확대한다. 2029년에는 관광 혼잡과 교통 운영, 안전 대응, 행정·돌봄을 연계하고, 가상도시에서 정책 대안을 비교하는 등 검증된 결과를 도시 운영에 적용한다. AI의 예측은 담당자의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한다. 2030년 이후에는 문화유산·관광 서비스와 지역 AI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되,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는 수요·투자·부지·전력·환경 조건을 충족할 때 확장을 검토한다.

실행체계에서는 경주시·소관부서가 정책·예산·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경주 AI·미디어센터는 기존 미디어·콘텐츠·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기획, 콘텐츠·데이터 정비, 현장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구분한다. 전문가의 독립검토와 시민의 사용성 확인을 결합하고, 실증 성과를 근거로 시비·도비 연계와 국비 공모를 검토하며 운영비·전담인력도 함께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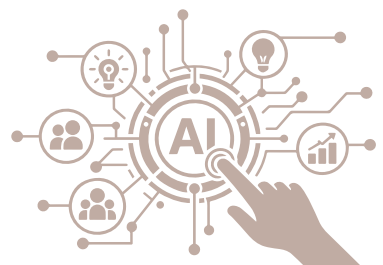
성과는 관광객의 실제 방문·체류, 시민의 정보 접근과 상담 연결, 기업의 검사·점검 개선과 후속 계약으로 확인한다. 사업 시작 전에 기준선·목표·측정주기와 확대·중단 기준을 설정해 검증된 사업을 다음 단계의 예산과 지속 운영으로 연결한다. 본 로드맵은 진행 중인 조사·부서 협의·전문가 자문·예산 검토를 거쳐 보완할 연구팀 제안으로, 관광객의 하루가 지역의 소득으로, 시민의 불편이 더 편리한 생활로, 현장의 기술이 지역의 성장 기회로 이어지는 경주를 지향한다.

SMARTER
GYEONGJU
BRIGHTER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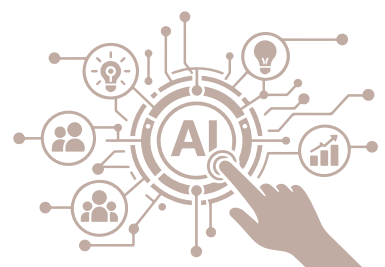


Memo

SMARTER
GYEONGJU
BRIGHTER TOMORROW



SMARTER
GYEONGJU
BRIGHTER TOMORROW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SMARTER
GYEONGJU
BRIGHTER TOMORROW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2026 경주

AI·AX

대전환
시민포럼

GYEONGJU AI·AX CIVIC FORUM 2026

